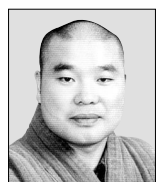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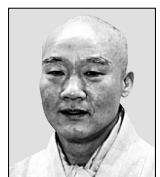
디디고 템플스테이
월우 전남 대흥사 주지 스님은 6월 8~9일 前 중앙승가대학원 원장 종석 스님 초청 '디디고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사찰음식강좌 개강
진화 순천 송광사 주지 스님은 6월 16일부터 3개월간 송광사 사찰음식 제철생활요리강좌를 진행한다.



33차 108성지순례
효광 대구 동화사 주지 스님은 6월 12일 서산 부석사 및 개심사에서 제33차 108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약수사 주지에 임명
화범 스님은 5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직할교구 약수사 주지에 임명됐다.



성남 탄천 생태환경 활동
가섭 한울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은 5월 21일 청소년 생명평화 실천단을 꾸리고, 성남시 탄천 생태환경 활동에 나섰다.



불교호스피스협, 자원봉사자 특강
5월 20일, 능인 스님 재능기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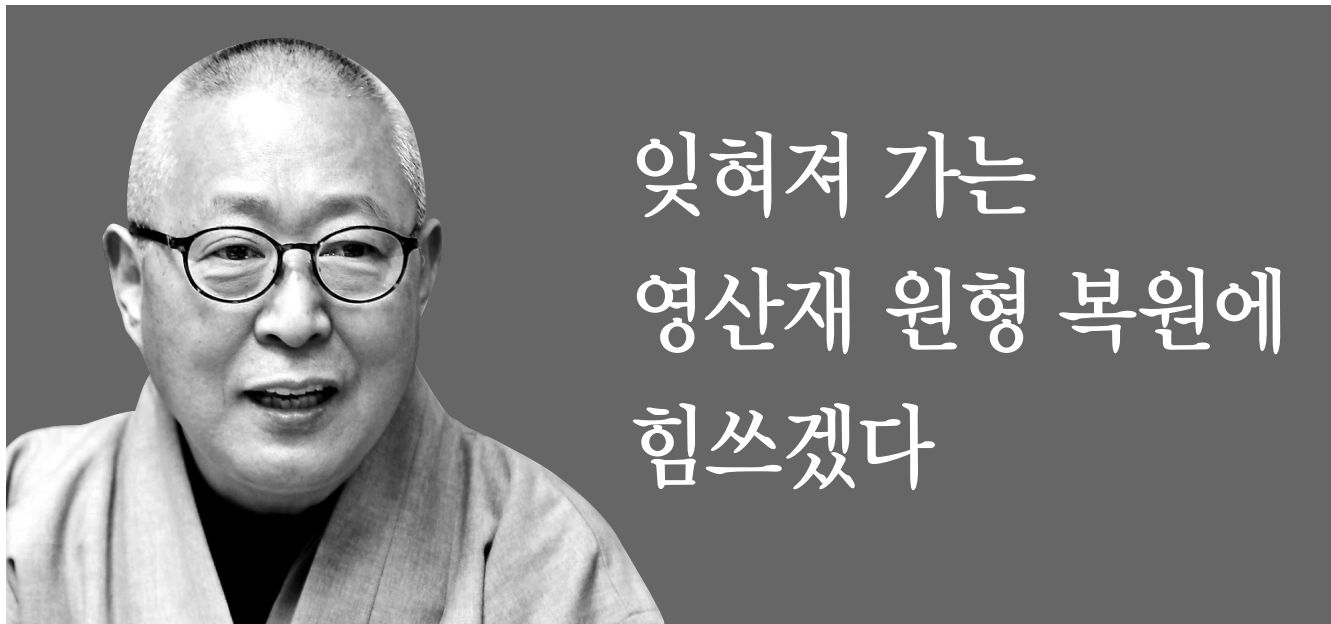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회장 능행)는 5월 20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지하교육관에서 서울지역 협회원과 호스피스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영적돌봄과 자기돌봄'이라는 주제로 협회 영적돌봄가인 능인 스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능인 스님은 직접 겪은 사례와 더불어 환자의 영적돌봄 사례 등을 발표하고, 호스피스 현장서 활동하는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소진 및 예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적돌봄가들을 독려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오는 10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소진 예방'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잊혀져 가는
영산재 원형 복원에
힘쓰겠다

Interview

영산재 및 제회 인류무형문화유산
축제 여는 봉원사 주지 선암 스님

6월 6~7일 태고종 신촌 봉원사에서 이틀간 열려

첫째날, 오전 10시부터 9시간 동안 영산재 진수 선사

둘째날, 저녁 6시부터 범패, 판소리, 국악 등 무대에

"불교 행사 넘어 전통 무형문화유산 축제로 거듭날터"

"영산재는 생사를 떠나 부처님 참 진리를 깨달아 번뇌서 벗어나는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는 의식인데 옛날에는 '3일영산재'라 해서 3일 동안 영산재를 했습니다. 첫째 날 밤에 시작해 다음날 하루 종일, 그리고 마지막 3일 아침에 끝나는 형식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원형을 많이 잃었습니다. 내년부터 3일 영산재를 시행하면서 점점 원형을 복구하는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사용되는 집기들도 함께 복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산재에서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코자 연등도 달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점점 잊혀져 가는 영산재의 원형 복원에 힘쓰겠습니다."

6월 6~7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남북통일 기원 및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재'를 펼치는 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 회장 선암 스님(봉원사 주지·사진)은 행사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중생구제의 큰 뜻을 널리 전하는 행사다. 지난해까지는 현충일 당일만 열었는데 올해는 하루 더 연장했다. 이유가 있다. 올해 처음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축제'를 기획했다. "솔직히 요즘 사람들은 영산재만 하면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시각을 바꿔보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국악, 가곡, 영산재 등만으로는 너무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풀이춤 전문가인 이재주 서울대 교수에게 도움을 청했

죠. 우리나라 3대 음악인 범패소리, 판소리, 가곡 등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째날 영산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 30분 정도에 끝날 계획이고, 인류무형문화재 축제는 저녁 6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첫째날 6일에는 영산재의 진수를, 이튿날인 7일에는 '인류무형문화유산축제'가 이어진다. 이 축제에는 남산일 명장을 비롯해 대금산조 이수자 권용미, 판소리 고법이수자 김용식, 퓨전국악팀, 장구춤 김승애,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인간문화재 김구해 스님과 전수교육조교 일운스님, 기봉·동희·경암 스님, 이수자·전수생들이 출동한다.

"무형문화재가 점점 쇠퇴하고, 관련 행사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부흥을 위해,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봉원사 영산재보존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은 130여개 정도 있지요. 그중 공연예술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3대 성악이라는 범패, 판소리, 가곡이 대표적이지요. 영산재가 음악과 어떻게 어울릴지 고민한 끝에, 이번주 무대를 범패, 가곡, 판소리 공연으로 꾸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기에 어울리는 퓨전국악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영산재를 문화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교행사로만 보는 시각이 많아 이를 탈피하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중입니다. 앞으로도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마련할 것입니다."

영산재 원형 복원에 대해 선암 스님은 말을 이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하루에 공연하는 영산재가 등록됐습니다. 제가 배운 4~50년 전 은사 스님 말씀을 빌리자면 깃소리에도 72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현재 구해 스님이 보유한 깃소리 가 14가지 정도 되니까 그동안 많이 소실된 셈이죠. 잡지는 많겠지만 복원이 절실합니다."

한편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중생이 모인 가운데 범패경을 설교하는 영산회상(靈山會上)을 재현한 불교의 식이다. 불교 음악인 범패에 바리춤·나비춤·범고춤 등 무용적 요소와 괘불, 감로행화 등 미술적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 성격을 지닌다. 1973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됐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김주ыл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동국대 경주캠퍼에 6억원 쾌척

만오 스님, 선센터건립기금 전달



부산 도원사 주지 만오 스님은 5월 23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대원) 백주년기념관에서 교내 선센터건립기금 6억 원을 전달했다.

만오 스님은 2012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비구니 학인스님들의 수행관인 사리암 건립을 후원하며 동국대와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지난해 관음장학회를 설립하고 장학기금 2억 원을 기탁, 매학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이번에 기탁한 기금은 도원사 대웅전 불사를 위해 평생 저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오 스님은 "불교종립학교인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불교세계화를 위해 선센터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뜻을 내었다"며 "좋은 뜻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관계자는 "스님은 투석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셔도 불구하고 힘쓰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몸소 보살행을 실천해 오셨다"며 "동국대 경주캠퍼스 내 선센터가 잘 지어지면 신도들과 함께 구경이나 가자고 하시면서 아무 조건 없이 거액을 기부하셨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템플스테이로 함께 넘은 '장애'

보리수아래, 학인스님들과 낙산사에서 템플스테이



장애불자들의 모임 보리수아래(회장 최명숙)는 중앙승가대 동아리 자비나눔(회장 도진)과 함께 5월 21~22일 양양 낙산사 템플스테이와 신홍사 순례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중증장애로 신체적 제약이 있는 장애불자들과 학인스님들이 1대1 또는 1대2로 짝을 맺어 진행됐다. 특히 장애불자와 부모들에게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기회가 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학인스님들에게는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포교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템플스테이는 예불과 단주 만들기, 위빠사나, 대화의 시간, 동해바다 관광 등으로 진행됐다.

최명숙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학인스님들의 도움으로 여법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장애불자들이 부처님법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신심이 두터워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많은 스님들이 장애인포교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일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TV-전국비구니회 업무협약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와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5월 25일 서울 법흥사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비구니수단 위상제고와 전국비구니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및 활동성과를 알리고, BTN 방송포교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 협약식에는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을 비롯한 전국비구니회 임원단과 구본일 BTN 대표이사 및 국장단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둬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詩人 김하리 합장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발원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상유품(51:41)
제8. 오색제수기품(21:11)
CD06-제9. 수확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담품(22:19)
제12. 제바담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랑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봉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속무품(04:36)
제23. 악왕보살보살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살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정왕보살품(14:46)
제28. 보현보살보살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연불상

